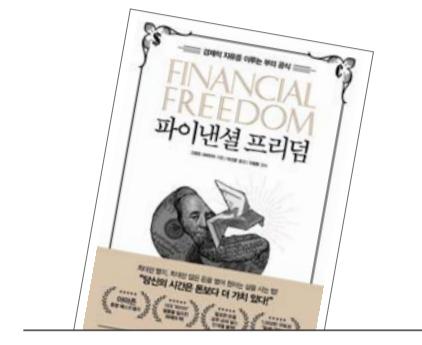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파이어운동 대표주자의 '조기 은퇴' 비법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65살에 은퇴하는 갑갑한 삶,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책은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모아 '조기 은퇴' 할 방법을 알려준다.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파이어(FIRE) 운동 열풍이 불고 있다. 파이어는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의미하는 약자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성인이 된 이후 은퇴할 때까지 약 40년간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산다는 것은 끔찍한 비극이다. 책의 저자인 그랜트 사바티어는 파이어 운동의 대표주자다. 그는 2010년 8월 직장에서 해고됐다. 당시 은행 잔고는 2달러 26센트. 그는 3년간 여러 개의 직장을 전전했지만 자신의 인생 중 4700시간을 세후 8만7000달러와 맞바꿨을 뿐 남은 게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바티어는 가능한 한 빨리 100만 달러를 저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5년 만에 125만달러를 벌어들였다.



파이낸셜 프리덤

그랜트 사바티어 지음/박선령 옮김/지철원 감수/반니

책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부의 공식을 알려준다. 순자산을 추적하고 목표 금액을 정해 세분화하고 저축률을 계산한다. 봉급을 올려 받아 본업을 디딤돌로 활용하고 수익성이 높은 부업을 찾아 돈을 불린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지금 당신을 불태워 은퇴 시기를 앞당겨라. 그리고 남은 시간에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라".

480쪽. 1만9500원. /김현정 기자

선물 관계



리처드 M. 티트마스 지음/김윤태·윤태호·정백근 옮김/이학사

우리는 왜 헌혈을 할까. 책은 자발적 헌혈자에 의존하는 영국의 헌혈 시스템을 통해 이타주의가 어떻게 사회를 결속시키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헌혈 시스템을 비교 연구해 시장 원리에 대한 맹신을 허문다. 영국은 99%가 자발적 헌혈자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9%에 불과했다. 1960년대 말 미국은 90% 이상의 혈액을 '보수를 받는 헌혈자', '조건부 헌혈자', '반강제적 헌혈자'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 우리가 헌혈로 혈액이라는 선물을 낯선 이에게 베푸는 이유.

519쪽. 3만원.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유민석 지음/서해문집

한국 사회에 혐오표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에서 주디스 버틀러까지 수많은 철학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찾아낸 해결책은 '말대꾸'다. 저자는 법적인 규제보다 대항표현이 더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금지하는 것은 설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이 가정하는 잘못된 전제의 논박, 기존 관습을 뒤흔드는 도발적인 맞받아치기, 유쾌한 패러디 등 각각의 말대꾸가 갖고 있는 힘을 짚고 철학적 논의로 뒷받침한다.

208쪽. 1만4000원.

현대홈쇼핑, 캐시미어 브랜드 '고비' 론칭

3년간 코트·니트 등 단독 판매

현대홈쇼핑이 프리미엄 패션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J BY A&D) 및 자체브랜드(PB) 출시에 이어 해외 유명 브랜드를 직수입해 패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몽골 캐시미어 전문 기업인 '고비(GOBI)'와 캐시미어 의류 완제품에 대한 홈쇼핑 단독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올 가을·겨울(F/W) 시즌부터 향후 3년간 코트·니트·원피스 등 고비의 다양한 캐시미어 의류 제품을 현대홈쇼핑이 단독으로 선보인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에서는 해외 패션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외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계약은 홈쇼핑 고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패션 콘텐츠를 제안하기 위해 의류 완제품을 직수입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캐시미어 브랜드 고비

/현대홈쇼핑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고비는 1981년에 설립된 몽골 최대 캐시미어 생산·제조업체로, 매년 8500톤의 캐시미어 원료를 채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시미어 니트 80만장·캐시미어 잡화류 48만장·캐시미어 코트 8만장을 생산하는 글로벌 캐시미어 전문기업으로, 현재 미국·일본·중국 등 13개국에 진출해 6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러피안 감성 가든파티 秋남秋녀들 마음 설렌다

내게 맞는 호텔 찾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4주간 금요일마다 '가든파티'

'미쉐린 2스타' 강민구 영입

'페스타 바이 민구' 정식개장

오아시스 야외풀장 프로모션
개인풀, 침대형 소파 등 구비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의 카바나.



페스타 초이스 런치.

도심에서의 일상은 숨가쁘게 돌아간다. 주변의 보폭을 맞춰 걷다 보면 찾고 싶던 여유는 어느새 등 뒤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자연으로 향하는 이유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하 반얀트리 서울)은 서울 중심인 남산에 위치하고 있다. 7만 평방미터의 부지에는 그림 같은 자연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온전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다.

◆가을, 미식의 향연

반얀트리 서울은 지난 7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인 '밍글스'의 오너 셰프 강민구 셰프를 영입해 어번 그린 다이닝을 콘셉트로 한 레스토랑 '페스타 바이 민구(Fest by mingo o)'를 정식으로 개장했다. 강 셰프는 링글스에서 모던 한식을 내놓았던 것과 달리, 캐주얼한 유러피안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가을에는 야외 정원에서 '어번 가든 파티'가 열린다. 오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금요일 오후 6시~10시마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프로모션은 페스타 바이 민구의 정원에서 강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레드 와인과 샴페인이 무제한 제공되고, 잔디 위 라이브 무대에서는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미식과 음악,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금상첨화다.

특히, 강민구 쟈칼 셰프는 가든파티 콘셉트에 맞춰 바비큐 풋락, 로스트 치킨 등으로 구성된 바비큐 쉐어링 플레이트를 준비한다. 이와 함께 샐러드, 퓌드, 디저트 등 제철 재료를 활용해 개발한 요리도 함께 내보일 예정이다.

강 셰프는 "어번 가든 파티는 초록빛 정원을 품고 있는 페스타 바이 민구의 공간적

처음 방문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페스타 초이스 런치를 통해 강민구 쟈칼 쟈칼 셰프의 터치가 들어간 요리를 보다 다양하게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이며, 가격은 1인당 6만5000원(부가세 포함)부터다.

◆야외 수영장서 가을 물놀이 즐겨볼까

반얀트리 서울은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의 가을 운영 기간인 레이트 서머 시즌을 맞아 '레이트 서머 오아시스 패스'와 '오아시스 카바나' 프로모션을 운영 중이다.

먼저, '레이트 서머 오아시스 패스'는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최고 32도까지 온수 제공이 가능한 시설이 전면 설비돼 있어 가을로 접어드는 9월에도 따뜻하게 야외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성인 6만원, 어린이 4만원이다.

또한, '오아시스 카바나'를 이용하면 개인 풀이 마련된 카바나와 함께 스파클링 와인과 과일 플래터로 구성된 웰컴 테이블이 제공된다.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에 위치한 카바나는 온수 시설이 설비된 개인 풀, 침대형 소파, 테이블이 구비돼 있어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의 아웃도어 키친에서 제공하는 메뉴도 별도 준비할 수 있다. 이용 시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4인 기준 73만원부터다.

팁을 전하자면 네이버를 통해 예약할 경우 주중 25%, 주말 및 공휴일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모션들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진행는데 반얀트리 서울에 투숙하지 않은 고객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눈여겨 볼 것을 추천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사진=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반얀트리 서울의 가을 외관.